

『2018년 제8호 한국문학(연간집)』 발간

축 사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에 한국문인협회
완도지회에서 문학인들의 시와 수필을 모아 완도문학
(연간집) 발간의 기쁨을 함께함으로 인해 겨울의 차가움
에도 따스함을 느낍니다.

한국문인협회 완도지회에서 2018년 제8호 완도문학
연간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문용희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학은 언어예술이면서, 물질문명에 젖어있는 우리
들의 정서를 순화시켜 주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중한 자산
으로써 지역문학발전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완도문학 연간집 발간은 한국문학인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통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며 즐거움을
안겨주고 완도 문학 발전에도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해 주시는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연간집 발간으로 완도문인협회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여러분의 창작활동이 주민들에게 가슴 따뜻한 감동과 행복으로 와 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왕성한 작품 활동을 통해 문학적 성취를 이루시고, 우리군 문학의 위상도 함께 높아지는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완도군의회 의장 조인호

